

## 농민이 원하는 것과 원해야 하는

농축산물의 수입개방이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질 것인가에 온 국민의 관심이 쏠려 있다.

UR협상이 12월 15일 이전에 타결을 목표로 막판 협상이 한창이다. 우리의 협상능력이라는 게 국민들 보기에 믿음이 가지 않기 때문에 더욱 불안하다.

아무리 농림수산부 장관이 몇 개 품목은 지킨다고 하여도 이를 믿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EC나 미국의 협상대표들이 하나같이 쌀 외에는 이미 해결된 것으로 말하기 때문이다.

UR협상이라는 것이 명분상으로는 세계 무역을 더욱 활발히 해서 잘 살아보자는 것이지만 선진국과 후진국이 서로 개방을 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리라는 것은 명확한 것이다.

어른과 아이가 링위에 올라가 시합을 하는 격이니 결과는 보지 않아도 알 수 있다. 특히 농축산물의 경우에는 자연환경의 절대적 영향을 받으므로 거의 경쟁이 불가능하게 마련이다.

기술농업, 공격형 농업이 뜻은 좋지만 대외적으로 우리 농업의 현실을 장미빛으로 포장해서 수입개방을 해도 별로 피해가 없는 것으로 한판 붙어 볼 만한 것으로 인식하지 않을까 걱정된다.

생산성이 세계 최고수준인 일본의 양돈산업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면서 UR협상 타결 후 우리의 현실을 보는 것 같아 불안하기 한이 없다.

미국의 돼지고기 생산비가 우리나라의 절반

수준인 6만원대이므로 운송비, 관세 등으로 막아본다고 해도 역부족으로 생각된다.

농민의 사양관리 개선으로 생산비를 절감하는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지난 12년간 계속해서 사료 등 생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주장해 왔으나 이번 국회에서도 처리되지 않고 해를 넘기게 되었다.

부가세 문제는 여당뿐 아니라 야당까지도 모든 대통령 후보가 공약으로 제시할 정도로 필요성이 인정되었음에도 이번에 처리되지 못한데 대해서 많은 축산농가는 좌절감과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 우리가 누구를 믿고 양축을 계속해야 하는가에 대한 허탈감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자조금 문제도 여건성숙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속 미루어진다면 이는 실시를 안하겠다는 것과 통한다.

수입개방을 앞두고 지금까지 걸어온 것을 정리해 보면 더욱 확실해진다.

처음 정부는 공청회를 거쳐 15개 기초 농축산물은 수입개방을 하지 않고 지키겠다고 약속하였다. 그후 쌀만은 지키겠다는 것으로 변화되었다. 다시 말해 나머지 14개 품목은 못지키겠다는 뜻으로 눈치채야지 어떻게 일일이 못지키겠다고 발표하느냐는 것으로 변한 것이다.

농민들이 어느정도 면역이 되었다고 판단되는 시기가 오자 14개는 개방할 수도 있다는 발표가

# 것은 동과 서의 차이이다

노영한 (본회 전무이사)



부가세 문제는 여당뿐 아니라 야당까지도 모든 대통령 후보가 공약으로 제시할 정도로 필요성이 인정되었음에도 이번에 처리되지 못한데 대해서 많은 축산농가는 좌절감과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 우리가 누구를 믿고 양 축을 계속해야 하는가에 대한 허탈감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나왔고 눈치없는 농민들의 반발이 심하자 서너개 품목은 지키려 노력한다는 선으로 후퇴하였다. 그러나 이때 매스컴 보도는 쌀개방 협상 뿐이었지 그외 품목에 대해서는 이미 기정 사실화 되었다.

그후 일본의 쌀개방 발표와 쌀개방 불가피론 등 어수선한 농민 정신빠는 일들이 한동안 이어진다. 그후 쌀만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사수한다는 방침이 어느 사이에 이번 APEC회담에서 쌀 문제를 합의한 적이 없다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정리해 보면 다음 수순이 무엇이 나올 것인가는 예측이 어렵지 않다. 부가가치세 영세율 문제나 자조금문제도 대개는 위와 같은 수순을 통해 목살되어 간다.

필요성을 절감한다. 이번 국회에서 꼭 한다. 그런데 하려고 보니 이런 문제가 있다. 일부의 반대가 의외로 크다. 시간을 두고 내년에 하자. 걷는

세금 다시 너희들에게 돌려 주는 것 아니냐 대개 이런 수순이 된다.

농민들이 생업인 농사를 포기하고 농기계를 반납하고 농촌을 떠나는 일이 시작되고 있다.

얼마 후면 더욱 빠른 속도로 타의에 의해서 농촌에 살 수 없어서 농촌을 떠나는 한국 농민의 대이동이 이루어질 것이다.

정부나 위정자들이 지금 축산농민에게 필요한 것은 이것이니 내가 알아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자세와 축산농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 처리해 주는 것과는 기본적으로 다르다.

문민시대에도 전자와 같은 생각을 한다면 희망은 없다.

축산농가가 원하는 것, 아픈 곳을 치료해 주어야지 다리가 아프다는데 팔을 치료하고 있다면 문제이다. 